

2016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천승*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6.06.26. ~ 07.16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샤스타 대학교로 래딩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완전 여름이라 엄청나게 덥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버틸만 했습니다. 또한 에어컨이 정말 잘나와서 추울 정도로 잘 보내다 왔습니다. 시설은 겉으로 보기에 낙후되어 보이지만 시설은 전반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수영장도 있기에 더울때가서 즐길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또한 시골 한적한곳에 있어서 꽤나 조용했고 편안했습니다.
Hospitality Class	수업은 외국인 강사 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100%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수업방법은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셨으며 강사 분들 또한 매우 전문적이며 프로페셔널 하셨습니다. 과제도 2~3번씩 있었는데 수업 내 열심히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었습니다. 수업준비는 수업가기 전에 노트나 저번에 나눠주셨던 프린트 등을 챙겨가면 됩니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유익했으며 해외에서 공부를 해서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Computer Class	컴퓨터로 엑셀수업을 하는 것이어서 엑셀을 하나도 모르면 따라가기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수업방법은 그냥 엑셀책을 주셔서 거기에 나오는 과정 등을 우리들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것이 있으면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했습니다. 과제는 따로 없었으며 수업준비는 학교에서 나눠준 usb만 챙겨갔습니다. 수업은 꽤나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필드트립	필드트립 때 우리는 래딩의 관광지와 올리브 공장 샌프란시스코 등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토요일에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쉬고 싶은데 따라가는 것조차 조금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환경을 느끼고 그런 곳을 방문함으로써 피곤함은 잊고 즐겁게 여행을 다닌 기분으로 다녀왔습니다. 동굴도 방문하고 이곳저곳 방문함으로써 우리들의 시야를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추가비용은 그냥 우리가 가서 간단하게 기념품등을 살 돈만 챙겨 가면 됐습니다. 그 외적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 정말 훅훅 더우면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습하지가 않아서 그래도 꽤나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더운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그래도 선선할 때도 있었지만 그냥 한국의 더운 여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습한 거 빼고. 그리고 덥다고 긴팔은 안챙겨 간다는 생각은 버려셔야 합니다. 실내가 에어컨 뽕뽕해서 춥기도 하며 가끔 밤에 춥기도 합니다.
안전	3주동안 안전에 위협을 느낀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숙소	기숙사 시설은 그래도 꽤나 좋았으며 2인1실이라 쾌적하게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샤워용품 세면도구 수건 등을 챙겨 가야하며 분위기는 좋고 규칙 같은 건 그냥 서로 피해 안주게 조용히 지내면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내에서 술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유의사항은 가끔씩 개구리가 나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식사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주로 밥을 먹었으며 밥이 맛없을 때에는 우리가 사온 라면이나 빵 등을 먹었습니다. 쇼핑은 자주 나가기 때문에 식자재등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카페테리아 식사는 꽤 준수했습니다.
교통	불편합니다. 막차가 pm 6:30에 끝나기 때문에 혼자나가기엔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차를 자주 태워주셔서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통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왕복 항공료	1,560,300	국내 납부
보험료	16,750	국내 납부
래딩 생활비	약 850,000	
합계	2,427,050	

5. 출국 전 준비사항

그냥 여행갈 때 챙겨갈 물건들을 챙겨 가면 되고 캐리어는 하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저도 2개가 필요했습니다. 귀찮더라도 캐리어2개가 있으면 좋습니다. 신발도 2개 슬리퍼 1개 정도 챙기면 좋습니다. 미국 출발하기 전에 그날 밤은 새고 비행기에서 자는 게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4학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하고 싶어도 더 이상은 기회가 없기에 이번에 무조건 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해외에서 수업도 듣고 새로운 사람들도 알고 저에게는 정말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느끼지만 영어는 해도 해도 부족함이 있기에 영어공부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꼈으며 저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교환학생 등으로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4학년이라 없다고 합니다...그래도 이렇게 좋은 경험을 주신 우리 학교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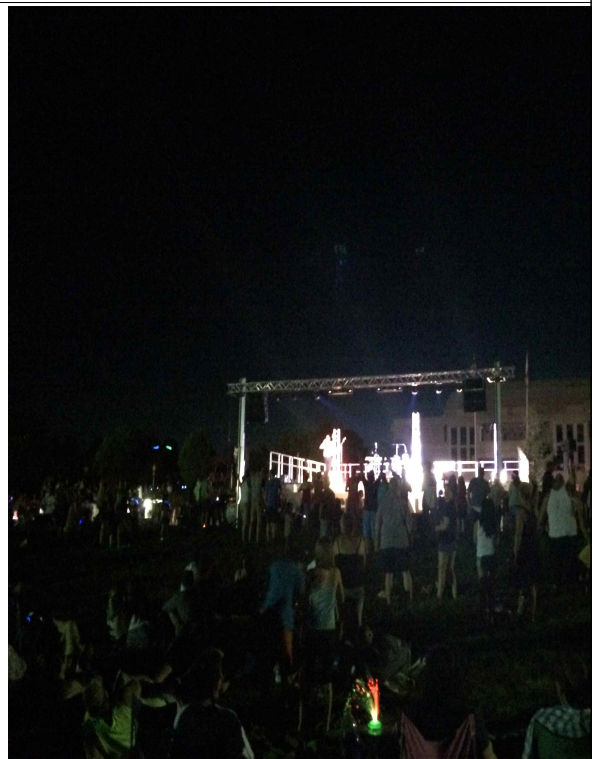
비아니 집에 초대되어 다같이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학교 친구 집에서 초대되어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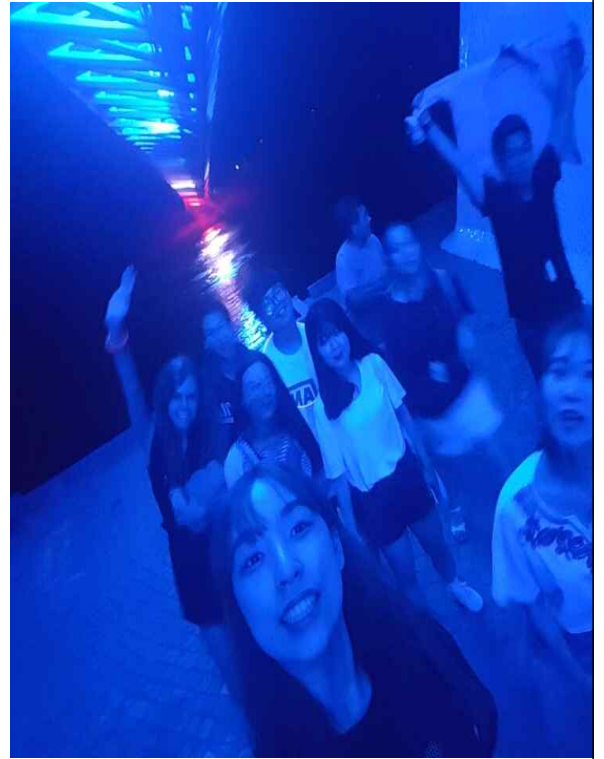
교수님 kieth집에서 바비큐파티하고 찍은 모습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때 폭죽놀이 구경하러 가는 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같이 차다고 가는 도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레딩 브릿지아래에서 폭죽을 즐기고 찍은
사진입니다.